김구라 · 설민석 · 이시영, 의외의 조합 통했다

‘선을 넘는 녀석들’, 첫번째 탐사 마쳐

탄탄한 짜임으로 예능의 완성도 높여

MBC 신개념 탐사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이하 ‘선녀들’)(기획 박현석, 연출 정윤정, 오미경)이 첫번째 여행지인 멕시코-미국 탐사를 마쳤다. 지난 방송들의 최고 시청률은 5%. 벌써부터 마니아층이 형성될 정도로 시청자의 반응은 뜨겁다. 두고두고 꺼내 보는 맛이 있다는 ‘선녀들’, 시청자와 통한 3가지 포인트를 짚어본다.

▶ 예능×탐사×교육×휴먼, 장르의 경계를 넘다

‘선을 넘는 녀석들’은 국경을 접한 두 나라의 닮은 듯 다른 역사와 문화, 예술을 직접 두 발로 경험하며 비교하는 탐사예능 프로그램이다.

물론, 그동안 해외여행을 콘셉트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았다. 하지만 ‘선녀들’은 달랐다. 분명 배경은 해외인데, 그 안에 묘하게도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가 담겨 있었다.

제작진이 탐사 대상국을 정하는 기준도 색다르다. 제작진은 “단지 선 하나를 사이에 뒀을 뿐인데,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다른 신앙을 가진 채 살아가는 나라들을 보며 의문이 들었다. 그 선이 그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는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대상국 선정 기준을 밝혔다.

‘선녀들’이 첫 여행지로 찾은 멕시코는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는 대상국이었다. 그간 예능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멕시코는 그 이름만으로도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여기에 우리와 묘하게 닮은 멕시코의 모습들은 호기심을 공감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선녀들’이 찬란했던 멕시코의 고대 아스떼까 유적지를 바라보면 자연스레 신라가 떠올려지고,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선 장벽에서는 남과 북을 가로지른 휴전선이 겹쳐졌다. 멕시코의 스페인 식민지 시절의 아픔은 일제 강점 하 우리네 아픔과 닿아 있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최초로 선녀들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선을 걸어서 넘어가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장면으로 시청자들에게 먹먹함까지 전해줬다. 여기에 ‘역사 강의계 넘버원’ 설민석의 시의적절한 한국사 비교형 설명과 ‘잡학다식’ 김구라의 깨알 상식이 더해져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 때문에 ‘선녀들’은 단순 여행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탐사하는 유익하고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 김구라×설민석×이시영, 각 분야의 선을 넘은 녀석들의 의외의 조합

김구라×설민석×이시영 세 명의 ‘선녀들’ MC는 언뜻 공통점을 찾기 힘든 조합이다.

예능인, 스타강사, 배우 등 활동하는 분야도 다르다. 그런 그들을 한 프로그램에 모은 것도 모자라 친한 사이끼리도 힘들다는 여행을 보냈다. 제작진 입장에서도 모험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우였다. 뚜껑을 열어보니 의외의 케미스트리가 시너지를 발했다.

먼저 역사와 예능을 넘나드는 ‘에듀테이너’계의 전설, 설민석의 출연은 단연 눈에 띈다. 설민석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평소 신념을 프로그램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했다. 멕시코와 미국 현지의 유적과 역사를 한국사에 대입해 설명하는 특유의 ‘고막강의’를 통해 타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선녀들’만의 매력 포인트를 더했다. 특히, 3회에서 멕시코 교민과 학생, 현지인을 대상으로 삼일절을 맞아 펼친 한인 이주 노동자 관련 강의는 이시영, 유병재 등 출연자들은 물론, 시청자까지 울린 명품 강의로 회자되고 있다. 여기에 예능 초보다운 의외의 허당기는 물론, 동갑내기 김구라와 티격태격 케미를 선보이며 의외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시영은 말 그대로 탐사예능에 최적화된 캐릭터로서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배우와 복싱선수라는 의외의 영역 간 선을 넘나들고 있는 이시영은 출산 2달 만에 복귀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중 가장 넘치는 체력으로 시청자를 놀래게 했다. 특히, 출발 전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박물관 티켓을 미리 예약하는 등 남다른 사전 준비로 제작진을 흐뭇하게 했다. 여기에 털털한 매력으로 현지에서 인간 내비게이션을 자청하고 운전대를 잡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선녀들’을 이끌었으며, 미친 친화력으로 현지인들은 물론, 시청자까지 사로잡았다.

여기에 예능과 시사의 선을 넘나들며 평소 넓고 얕은 지식을 자랑한 김구라가 힘을 더했다. “배우면서 의미 있는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포부와 함께 ‘선녀들’에 합류한 김구라는 이를 증명하듯 여행지에 대한 사전 조사로 중간중간 적절한 설명을 더하는 것은 물론, 설민석, 이시영 등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현지 문화에 흠뻑 빠지는 모습으로 보이며 진정성도 전했다. 물론, 특유의 돌직구 화법과 아재 파탈적 모습으로 여전한 예능감도 뽐냈다.

▶ 탄탄한 짜임으로 예능의 완성도 높여…국경선을 넘는 16번의 이야기

‘선녀들’은 처음부터 총 16부작 시즌제 예능으로 선보였다.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드라마처럼 사전 구성에 힘을 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제작진의 의지다.

또한 하나의 국경선마다 총 4회 구성으로 내용을 충실하고 짜임새 있게 담았다. 첫 방문지였던 멕시코의 경우 총 4회 분량에 멕시코의 유적지를 만나는 1부와 문화와 역사를 만났던 2부에 이어 현지인의 삶을 함께 즐기는 3부, 미국과의 국경 모습을 다룬 4부로 뚜렷한 기승전결을 갖췄다. 단순히 여행이 목적이 아닌 역사, 문화, 예술은 물론, 사회적인 이슈까지 담으며 여타의 프로그램과 확연한 차별을 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은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색다른 출연진의 조합과 색다른 재미가 있었다’, ‘최근 본 프로그램 중 최고다’라는 호평을 쏟아내며 다음 국경선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선을 넘는 녀석들’은 이제 막 4회 방송으로 하나의 선을 넘었다. ‘선녀들’이 다음에 넘을 선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선이다.

제작진은 “국경선이라는 선을 둔 두 나라의 닮은 듯 다른 모습을 현지인의 눈높이에서 담고 싶었다. 김구라, 설민석, 이시영 등 출연자들이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주고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 국경선편에는 특별한 게스트들도 깜짝 출연한다. 많은 기대 해달라”고 시청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총 16부작 시즌제 예능으로 선보이는 ‘선을 넘는 녀석들’은 국경을 접한 두 나라의 닮은 듯 다른 역사와 문화, 예술을 직접 두 발로 경험하며 비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 모습부터 고유한 역사까지 탈탈 털어보는 신개념 세계 탐사예능이다.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50분.

‘나의 아저씨’ 경계 없는 인간적 연대를 만들다

현재 방송 중인 tvN 수목드라마 ‘나의 아저씨’(극본 박해영/ 연출 김원석)에는 다양한 형태의 만남이 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성별, 나이, 삶의 흔적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계를 흐릿하게 지워낸 인간 대 인간의 이야기 관계가 그려지고 있는 것.

삼형제의 노모 요순(고두심 분)을 사이에 둔 유사 모녀, 모자 관계의 애정과 위안, 여배우 유라(권나라 분)와 동네 평범한 주민들 사이의 ‘망가지는 것’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의 이해를 그리는 동훈(이선균 분)과 지안(이지은 분) 등 묘한 연대를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 세 가지를 짚어봤다.

#1. 요순과 정희, 그리고 겸덕

아들만 셋인 요순에게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아들의 친구 정희(오나라 분)는 딸 같은 존재다. 정희가 운영하는 동네 술집 ‘정희네’의 청소 일을 봐주며 소일거리를 하는 요순. 두 사람 사이에는 피로 섞이진 않았지만 모녀 관계와 같은 애틋함이 있다. 삼형제의 반찬을 만들 때 정희를 함께 챙기고, 정희가 여행 간 틈틈이 ‘정희네’를 돌봐주는 요순과 그 애정에 정희는 기꺼이 딸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다.

겸덕(박해준 분)과의 관계도 흥미롭다. 마음이 답답한 일이 생기면 요순은 겸덕이 의탁하는 절을 찾아간다. 일찍이 속세를 떠나 스님의 길을 선택한 겸덕은 아들의 친구지만, 곁에 앉아 삶의 고됨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요순에 위안을 주는 존재다. 게다가 겸덕은 과거 정희와 연인관계로 요순에게는 짠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해, 이들의 기이한 관계성에 더 흥미로운 전개를 기대케 한다.

#2. 유라와 후계동 사람들

여전히 꿈꾸는 여배우 유라는 잠시나마 반짝였던 옛 영광을 함께했던 기훈(송새벽 분)을 통해 후계동 사람들을 만났다. 잘나갔던 과거를 뒤로하고 조금쯤 초라해진 모습으로 현재를 겪어내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유라는 “망가진 것들을 사랑한다”고 했다.

얼핏 들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자기위안 같은 말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망가지는 걸 두려워한다. 나도 그랬다. 감독님이 망한 것보다 망했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좋다”라는 솔직한 유라의 고백은 후계동 사람들은 물론 시청자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했다. “망가져도 불행하지 않다. 망가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가 여배우와 동네 주민들이라는 이질적인 연대의 공감으로 표현되며 더 강렬한 감동이 된 것.

#3. 그리고, 동훈과 지안

드라마의 중심에 서있는 동훈과 지안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특별한 접점은 많지 않은 대기업 부장과 파견직 직원으로 만났다. 성별과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살아온 인생길도 판이하게 달랐다.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시나?” 같은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저씨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판단하려고 그런 거 물어보냐”라던 냉한 사회초년생은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았다.

하지만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새겨진 나와 비슷한 상처에 공감한 ‘성실한 무기징역수’ 동훈과 ‘경직된 인간’ 지안은 몇 번의 위기 겪으며 어느새 서로에게 “행복하자”고, “파이팅”하라고 응원하는 관계로 변모했다.

이처럼 선뜻 어울리지 않는 다름을 지닌 이들이 만나 펼쳐가는 색다른 연대를 그리고 있는 ‘나의 아저씨’. 우리를 둘러싼 벽을 넘어설 때, 보다 따뜻한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이 드라마의 남은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다.

한편 ‘나의 아저씨’는 매주 수, 목요일 밤 9시30분 방송된다.

첫방 ‘스푸파’ 백종원 기존 음식예능과 무엇이 달랐나

tvN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홀리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지난 23일 방송된 1회에서 백종원은 중국 사천요리의 중심지인 청두에 도착해 길거리 음식 탐방에 나섰다. 마파두부, 궁보우지딩부터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페이창펀, 쥔뚠궈쿠이 등 다양한 음식들이 백종원의 감칠맛 나는 설명과 어우러지며 군침을 자극했다. 요리와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백종원의 모습에서는 음식에 대해 평소 그가 가져온 애정이 그대로 묻어났다.

무엇보다 이날 방송에서는 눈과 귀를 자극하는 감각적인 영상이 펼쳐지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요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지며 현지에 실제로 와 있는 듯한 생생함을 전한 것. 이로써 “음식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내려 한다”는 제작진의 의도는 첫 회부터 적중했다.

이날 방송은 전국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1.7%, 최고 시청률 2.2%를 기록했다. tvN 채널의 타깃인 2049 시청률에서는 전국 최고 1.6%로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달성하며 남녀노소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청두와 프로그램 이름이 주요 포털 검색어에 오르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오늘의 운세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음력 3월 10일)

▶쥐띠 1, 4, 8월생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 하는 격이다.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으니 취미 생활을 갖는 등 다른 곳으로 신경 쓰라. 음식업, 주류업 종사자는 힘들다 고민하지 말라. 음지가 양지로 변하는 이치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해야 한다.

▶소띠 1, 6, 7월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구나. 남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을 찾으라. 상대인 ㅁ, ㅈ, ㅍ 성씨 마음이 흔들리니 쥐, 닭, 돼지띠에게 도움을 얻어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

▶호랑이띠 힘든 일이 있다면 친척보다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2, 6, 9월생 ㅂ, ㅊ, ㅎ 성씨 자신이 갈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친척이나 동료와 문서 관계로 송사 건이 우려되니 조심하라. 특히 언행에 유의하라.

▶토끼띠 품은 뜻은 크지만 ,자신이 없어 진출하는 것이 늦어지는구나. 2, 9, 11월생 출판업이나 언론, 작가 종사자는 남의 실수로 신경 쓸 일 많겠으나 ㄱ, ㅁ, ㅎ 성씨를 이해하며 관대히 용서하라. 직장에는 좋은 일 있겠으나 가정에는 근심이 생기겠다.

▶용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으면서도 벗어날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다. 2, 3, 8월생 모든 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탈피하라. ㄱ, ㅇ, ㅍ 성씨 방황을 끝내고 각자 직장을 가져 위험 수위를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뱀띠 사랑하려면 확실히 하라. 사랑하는데 기름에 물이 도는 것처럼 하면 사업에도 지장이 있다. ㅅ, ㅊ, ㅎ 성씨 정신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대성한다. 2, 5, 7월생 안 되는 것을 그대로 잡고 있으면 지출만 많겠다. 남동쪽으로 옮기라.

▶말띠 처음 시작은 거창하고 자신만만하게 행동하지만, 안 하는 것만 못하구나. 6, 8, 12월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라 대운이 열린다. ㅅ, ㅂ, ㅎ 성씨 애정은 갈등이 심각하겠다.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서라.

▶양띠 4, 6, 9월생 힘든 상황을 참고 인내할 때 길은 열린다.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만, 찬스가 올 때는 딴 길로 우회전하면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 ㄱ, ㅅ, ㅊ 성씨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이해하는 미덕을 길러야 마음의 평정을 찾겠다.

▶원숭이띠 5, 10, 12월생 긴 안목을 보고 상대를 대하라. 즐거움도 좋으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다. 눈앞에 닥친 이익만 생각하다 관재수 따를 듯하다. ㅈ, ㅊ, ㅎ 성씨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건강을 알아서 지키라. 가정의 기쁨이다.

▶닭띠 남에게 베풀 줄 알라. ㄱ, ㅁ, ㅈ 성씨 가지려는 욕심이 강하니 주위 사람에게 핀잔을 듣겠다. 연상인 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있을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 없도록 하라. 1, 3, 6월생 파란색으로 뜻을 펼친다.

▶개띠 구상하는 일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 4, 5, 8월생 ㄱ, ㅊ, ㅎ 성씨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부동산, 식품, 의류업은 침체 상태나 차차 순조로움이 뒤따르니 인내하라.

▶돼지띠 여러 갈래 생각은 발전할 수 없음을 알라. 무엇이든 이루려는 뜻은 가상하나 조건을 내세우면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5, 9, 10월생 사랑은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순수하게 믿고 의지할 때 상대 또한 마음을 열고 사랑하라.